



소비자 목소리 담은 소비자정책을 만든다

제2회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17일 시상식을 열고 16건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에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총 229건 접수됐으며, '퍼스널모빌리티 안전성 제고방안' 등 1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경원 씨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를 느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소비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첫째인 2017년에는 50건이 접수되어 그 중 2건*이 지난 7월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선권고 과제로 채택(상정)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건의 과제뿐만 아니라 접수된 모든 과제를 검토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향후 소비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캠페인 개최

한국소비자원, 충청도청과 안전점검 중요성 적극 알리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18일(화) 청주시 육거리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충청북도, 청주시, 민간단체, 안전모니터 등 80여 명이 참여해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배우기 등으로 꾸며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충청북도와 이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계기로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결정, 10월 27일 충청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점검의 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1996년 4월 4일부터 행정사책으로 실시해왔으며, 20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 중이다.



추석맞이 지역 학생 격려행사 개최 한 부모·다문화 가정 등에 격려금 등 전달해

추석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월 19일 추석을 맞아 충북혁신도시 내 한 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초청해 격려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10명과 보호자들이 초청되었고,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원장은 “씩씩하고 밝게 성장해줄 것과 소비자원과 맺은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후 매년 명절마다 학생들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2017년 설부터는 인연을 맺은 학생들을 다시 초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1사촌,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보호시설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지역 이전기관과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꽃동네학교 소비자교육으로 피어난 사회적 가치

특수학교 학생 위한 맞춤 소비자 안전·권리교육

한국소비자원은 10월 8일과 16일 총 4회에 걸쳐 충북 음성 꽃동네학교 장애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전국 특수학교 최초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교육 당시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눈높이에 맞춘 기초적인 소비자 피해예방방법이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은 기초 소비생활과 소비자안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학생에게는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중·고등학생에게는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의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한 수준별 소비자교육이 제공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교육과 함께 품질 및 안전성 시험검사 등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 중 활용이 가능한 의류, 이불, 삼푸 등 생활용품 100여점을 꽃동네학교에 기증했다.